

Community Projects by Artists

원정

인천 배다리·우각로

안양 석수시장 프로젝트

마석 이야기

동두천 프로젝트

리포트

기획자 인터뷰



소외와 침묵의 동두천을 공정과 소통의 공간으로

서울과 휴전선 중간에 위치한 동두천은 천혜의 입지조건 때문에 오히려

불행했다. 일제 식민 시절에는 일본군이, 미군정 시기부터 지금까지는 미군이 항상 주둔해왔고, 그 과정에서 토지는 반 강제로 몰수당했다. 소외된 주민들에게는 자체 검열과 언어의 상실이라는 트라우마가 깊게 남았다. 2006년 말, 예술가들은 무거운 역사가 활취고 간 상처를 대면하고 소통하기 위해 동두천으로 들어갔다.

글 임국화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과정·큐레이터학 전공



우리의 '이웃', 동두천

근래 미술 현장에서는 '공공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공동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것들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과 이야기들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발견하기'에 그치고, 작가들의 경우 자신들의 움직임과 말에 지역민이 따라서 움직여 주기만을 바라기도 한다. 김상돈, 고승욱, 정은영, 노재운, 이 네 명의 예술가들은 그런 몸짓을 반성하며, 지역공동체의 '이웃'으로서 주민들과 대화하면

서 지역공동체가 주시하는 이슈를 추적해보고, 새로운 상상을 펼치고자 동두천을 찾았다.

〈동두천 프로젝트〉(Dongducheon: A walk to remember, A walk to envision)는 '인사미술공간'(이하 인미공)에서 2006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뉴욕의 '뉴뮤지엄'(New Museum)에서 기획한 〈뮤지엄 애즈 허브〉(Museum as HUB)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는 뉴뮤지엄을 중심으로 이집트의 '타운하우스 갤러리'(The Townhouse Gallery), 멕시코의 '뮤제오 따마요'

동두천은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과 어둠까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역이다. 마주보고 있는 구시가지와 보산역 신역사의 극명한 대비가 동두천의 현실을 말해주는 듯하다. 사진 © 김상돈

(Museo Tamayo), 네덜란드의 ‘반아베 미술관’(Van Abbe Museum), 한국의 ‘인미공’, 이렇게 5개 국가의 기관을 선정해 2년 동안 협업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5개 기관은 ‘이웃’이라는 공동 주제를 가지고 각 기관이 위치한 지역 혹은 도시의 특수성을 연구한다. 이에 인미공은 ‘동두천’을 우리의 이웃으로 선택했다. 동두천이야말로 한국, 특히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 타지역과의 보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동두천 프로젝트〉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동두천을 적절한 언어와 표현 방식으로 시각화, 언어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국가 제도의 차원뿐 아니라 우리의 무비판적인 인식과 언어의 몰이해는 동두천에 폭력으로 작용했다. 그로 인해 동두천 지역 내에는 침묵, 혹은 뿌리 깊은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미군 재배치, 미군 범죄, 무차별적 개발 계획, 반환기지 환경보상 문제,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등 동두천이라는 지역이 가진 이슈들이 워낙 커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가들은 여러 개로 얽혀 있는 지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빈번하게 동두천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만나야만 했다. 네 명의 예술가들은 지역주민과 큐레이터, 커멘테이

터(해설자, commentator)들과 함께 자유로운 방식으로 지역 현장을 답사하고 지역 주체와 공동체를 만났다.

작가들, 동두천 주민들과 대면하다

작가들 개인적으로는 동두천에 자주 찾아갔지만, 지역 사람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2007년 8월부터였다. 작가들은 주민들과 함께 동두천 상패동 공동묘지와 동두천 시민연대를 방문했다.

상패동 공동묘지는 현재 무연고 공동묘지로 비석 하나 제대로 세워진 묘가 없고, 숲으로 우거져 있어 접근도 쉽지 않다. 1960, 70년대 6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두천은 당시 엄청난 부가 발생한 지역이었고,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상인이나 미군 클럽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던 타지역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곳에 묻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지촌 여성으로 추정된다.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아 버려지듯 상패동 공동묘지에 묻힌 것이다.

시민연대 방문 후 주민들과 작가들은 상패동을 포함한 여러 곳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나누었다. 시민연대 강홍구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동두천 지역 아이들은 타지역에 가면 자신이 동두천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고



상패동 공동묘지는 비석 하나 제대로 없고, 숲이 우거져 접근도 쉽지 않다. 여기에 묻힌 사람 대부분은 1960년대, 70년대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클럽에서 일하던 기지촌 여성으로 추정된다. 작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상패동 공동묘지를 찾았다. 사진 © IAS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이는 동두천에서의 작업이 지나온 시간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들을 정리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9월에는 캠프 님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캠프 님블은 50년 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해오다가 지난 2006년 반환된 것으로, 현재 이곳을 두고 개발업자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들이 난개발과 막개발로 앓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캠프 님블의 사용 방향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해보았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접근이 불가능한 캠프 님블을 멀리서 바라보고 돌아와야만 했다.

작가들과 주민들의 만남을 통해 축적

된 이야기들이 발전되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을 방문하고 작가들의 작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10월에 만들어졌다. 더욱이 2007년 10월 28일은 윤금이 씨가 주한미군 병사 케네스 마클에 의해 참혹한 죽음을 당한 지 15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동두천 시민연대가 준비한 추모행사에서 작가들과 지역주민, 커멘테이터가 함께 하는 <Pre-talk1>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동두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리서치’ 방식으로, 참가자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누는 자연스럽게 즉흥적인 대화와 토론이 핵심이다. 작가 4인과 동두천 프로젝트 커멘테이터 이대훈(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평화학 외래교수, 아시아지역대안교류회 사무처장), 황세준(작가, 비평가), 강홍구(전 동두



천 시민연대 상임대표), 동두천 시민 10인(김병남, ‘다비타 공동체’의 전우섭 목사 등)이 참여했다.

고승욱, 상패동 공동묘지에서

그들을 다시 떠올리다

〈Pre-talk1〉은 동두천의 노동, 경제, 소수자들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재현언어의 부재에 작업 키워드를 두고 있는 고승욱 작가의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상패동 공동묘지 찾아가기 그리고 다시보기〉는 기억 속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상패동 공동묘지를 ‘찾아가서’ 생성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역사적인 소중한 장소로서의 상패동 공동묘지를 ‘다시 보고’, ‘다시 기억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쓰레기 수거, 묘지 입구 별초, 고 윤금이 씨 가묘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황세준은 상패동 공동묘지를 둘러보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릴 것이며 이곳의 특수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함을 말했다고, 강홍구 전 동두천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렇게 상패동 공동묘지에서 다음의 방향들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게 생각한다. 동두천 시민들 중에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 자체를 인정 안 하려는 사람도 많다. 작가를 통해 우리도 이곳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겠다”고 동



특수한 지역적 맥락에서 형성된 공간이 개발 논리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승욱 작가는 상패동 공동묘지를 보존하고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사진 © 고승욱



두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고마운 감정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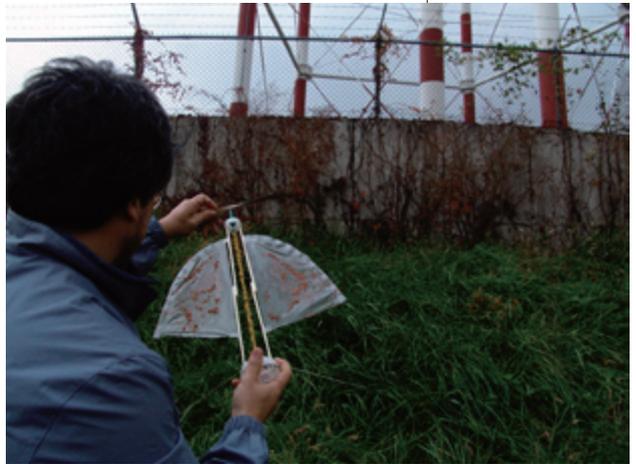
고승욱 작가는 미군 공여지 반환 계획이 논의된 이후 동두천에서는 개발논리와 지역개생을 앞세운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과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수한 지역적 맥락에서 발생한 동두천의 기억을 일부 개발업자와 동두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있는 현장을 본 그는, 상패동 공동묘지를 보존하고 재구성하는 <상패동 공동묘지 공원화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동두천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노동자, 다문화 가족 등 소수자를 위한 공공영역을 제공하면서 삭제되고 가려져온 동두천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다.

김상돈, 미군기지에 비행물을 날리다

김상돈 작가는 동두천 주민들의 침묵과 소외, 동두천 특유의 언어에서 읽어낸 지역 데모그래피(demography)로 동두천에 접근한다. 그는 캠프 님블에서 <Discoplan: 반환 미군기지 캠프 님블에 토끼풀뿌리기>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비행체에 토끼풀 씨를 매달아 캠프 님블 방향으로 날리면, 담을 넘은 비행체가 기지 안쪽에 착륙하면서 씨를 미군



김상돈 작가는 토끼풀 씨와 주민들의 희망을 담은 비행물을 주민들과 함께 제작해 캠프 님블 기지로 날아올리는 작업을 했다. 높고 견고한 담장을 넘어 훌쩍려진 씨앗은 오염된 토양뿐 아니라, 주민들의 상처도 치유해줄 것이다.
사진 위 © 정은영, 아래 © IAS



부대 곳곳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작가가 고안한 매뉴얼에 따라 연, 고무동력 헬리콥터, 물 로켓, 달걀 등의 비행체를 각자 제작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고안물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비행체에는 동두천에 대한 희망을 그리거나 글로 썼다. 토양오염 치유의 여러 방법 중에 널리 쓰이고 있는 ‘토끼풀-식물 토양정화법’을 이용해 주

민들과 함께 토양 치유행위를 실천해보고, 나아가 반환미군기지의 오염 책임을 주민들이 되받아야 하는 아이러니컬한 지역 현실을 나누고자 함이다. 함께 참여한 강홍구 전 동두천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동두천을 숨기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자산으로 끌어내자”며 “기지반환과 맞물리면서 개발업자들은 완전히 뒤엎고 새로 만들자고 하지만 그곳을 보존해서 새로운 민주평화의 상징으로서 자산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하게 표현했다. 황세준 씨도 “동두천이 배경이 된 영화 <칠수와 만수>를 보면 박중훈이 극중에서 동두천 출신임을 밝히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을 지적하며, “가장 큰 상처, 보여주기 싫은 것을 과감히 드러내어 끌어안는 것을 보여줄 때, 오히려 동두천에 대한 담론 자체가 바뀌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며 역사의 상처를 동두천만의 자산으로서 발전시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담았다.

김상돈 작가는 퍼포먼스를 넘어서, 동두천 주민들 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場)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고안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동두천에 대한 희망을 나누며 지역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앞으로의 방향들에 대해 좀더 자발적인 의견들을 내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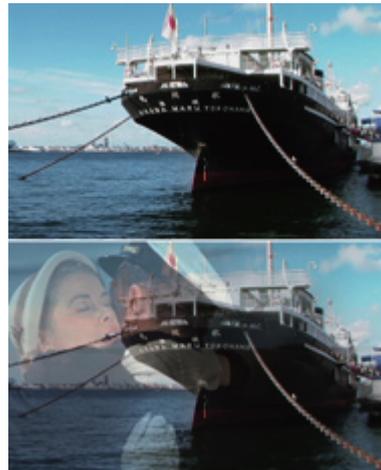
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동두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언어들을 추적하는 <Little Chicago>, 버려진 공간에 대한 인터뷰와 거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아파트>, <상패동공동묘지>라는 작품들로 묘지, 죽음, 버려진 공간들의 생생함을 강조하고 대조적으로 도시 개발 과정의 흔적들을 침묵하는 이미지로서 촬영한 사진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노재운, **헐리우드 장르영화와**

동두천을 교차시키다

노재운 작가는 동두천을 포함한 현 군사 재배치 계획을 참고로 하여 서구 엔터테인먼트와 동두천 사이의 구조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 그는 미군 주둔의 역사와 한국인들의 무의식, 그리고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군 재배치 문제들이 헐리우드 장르영화에서 재현되는 여러 가지 상투적인 유형들과 여러 가지 경로로 서로 교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데 집중해 웹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재운 작가는 주민들이나 커뮤니티와의 만남을 통해 그간 알지 못했던, 혹은 편견으로만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동두천이라는 지역이 오늘날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가 많은 방법을 통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미군 주둔의 역사와 한국인들의 무의식, 현안이 된 미군 재배치 문제 등은 할리우드 장르영화 속에 나타나는 상투적 유형과 오버랩된다. 동두천을 할리우드 장르영화의 구조와 교차시키는 웹 작업을 위한 트레일러 영상. 노재운, <Bite the Bullet!>, 2007 © IAS



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동두천의 모습이 전형적인 한국식 개발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잘못된 개발의 과잉 속도는 과거의 망각과 표백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며 진행될 텐데 이 경우 사라져가는 것들이 그냥 사라져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영, 숨겨져온 존재의 증거를 사진에 담다

정은영 작가는 건축물에서 사회를 읽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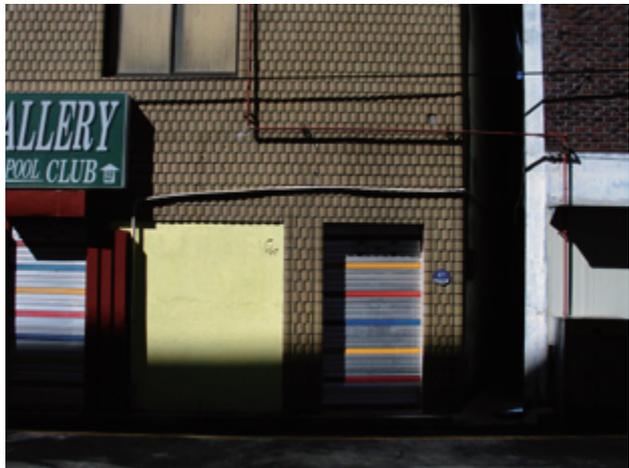
폴로지(topology)와 기지촌 여성을 둘러싼 행정조직의 민족주의, 기억에 있어서의 반언어적 작업에 몰두한다. 정은영의 <The Narrow Sorrow>는 동두천의 건물과 건물, 혹은 클럽과 클럽 사이에 존재하는 기이하게도 좁은 문과 그 문에서 이어지는 여자들의 방을 사진에 담았다. 분명히 동두천 지역에 거주해온 실체가 분명한데도, 공적인 행정 기록에는 등록되지 못해 투명인간들처럼 지내는 클럽 여성들, 다문화 가정 2세대들, 그밖의 각종 소수자들의 이슈들을 사진과 텍스트

트로 엮어 포스터 시리즈로 만들었다.

정은영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 동두천 토착민들과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식민지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동두천 주민 차원에서 만들어진 공존과 저항의 생존 전략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삶이 드러나는 지점을 찾고 있다. 동두천을 취재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접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작가 자신의 삶과 작업에 어떻게 끌어와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하면서, 동시에 작가의 이야기가 '개입'인지 혹은 '침입'인지 그 경계를 성찰하고 있다고 말한다.

작가는 조력자, 기록자이자 촉발자

지난 1월, 캠프 님블 반환 및 기지 정화 사업 설명회와 시찰이 있다는 소식에 작가들과 동두천 시민들이 동두천 시청에 모였다. 시장과 시민단체, 언론인, 시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프 님블의 환경오염 실태 및 향후 토양치유 계획 보고회가 있었다. 실태 보고에 따르면, 캠프 님블 전체 6만 6681㎡ 부지 가운데 오염 면적은 1만 4160㎡이며, 오염 부피는 2만 1710㎥, 오염 토양은 3만 2348톤에 육박한다고 한다. 아직 완전히 반환되지도 않은 캠프 님블을 두고, 현재 개발업자들은 환경오염이 복구되지 않은 상황은 관여치 않고 개발육구



동두천의 건물 사이에 존재하는 기이하게 좁은 문은 실재하면서도 투명인간처럼 자넌 수밖에 없는 소수자들의 존재 방식을 드러낸다. 정은영 작가는 동두천 주민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존과 저항의 생존 전략들을 일련의 포스터 작업으로 조명한다. 사진 © 정은영

만 내세우고 있다. 동두천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되묻고 정립해야 할 또 하나의 지점이다.

시찰을 위해 버스를 타고 캠프 님블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2년여 동안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캠프 님블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로 모두들 약간씩 흥분되어 있었다. 황량한 느낌을 주는 이 장소가 동두천 시민들에게 문화적 자산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캠프 님블 안으로 들어섰다. 11개의 오염지역들을 포크레인으로 직접 확인하자고 했던 시민연대는 파내야 할 지점까지 직접 선택해야 했다. 처음 땅을 파을 때는 오염된 흙이 나오지 않아 당황했지만 두번째 지점에서 1m 정도 파고 나니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며 까맣게 오염된 흙덩어리들이 나와 그 심각한 정도를 모두가 가늠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공개적인 정화 과정을 서너 번 정도 더 가진다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확인시켜 줄 것인지, 지자체에서는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지, 지역주민들은 더 관심을 갖고 그 해결 방향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동두천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스스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촉발자, 조력자,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동두천에

서 작가들의 예술 행위는 지역성과 지역 공동체(사회적 주체)가 오랫동안 침묵해온 일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비판적 인식과 재구성, 재해석을 유도하기 위한 개입이며,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동두천이 직접 발언할 수 있게 해주는 대화와 소통의 중재자이자, 협력자인 셈이다. ■

글쓴이 **임국화**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큐레이터학과에 재학 중이다.